



강북구의회
GANGBUK DISTRICT COUNCIL

의정활동보도

2015년 7월 6일
(월요일)

북부신문 7면

강북구의회 15일 개원 20주년 구민과의 의견 소통 간담회 개최

강북구의회(의장 김동식)가 주민들의 아이디어를 행정에 접목하기 위한 구의회 차원의 주민과의 소통 시간을 갖는다.

강북구의회 개원 20주년 기념으로 오는 15일 오후 3시 강북문화예술회관 행복실에서 각계각층 구민 100여 명을 초청한 가운데 구민과의 의견 소통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한 것. 이는 7대 개원과 함께 '소통하는 의정 구민중심의 강북구의회'를 슬로건으로 내세운 7대 강북구의회의 정체성을 가장 잘 보여줄 자리로 기획됐다.

김동식 의장은 "의원들 대다수가 소통하는 의정 구민중심의 강북구의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을 슬로건에 담았다"며 "이번 간담회는 개원 20주년을 기념해 구민과의 소통 기회를 넓히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특히 민원 형식이 짙은 일상반복적인 단순한 질문이나, 주택 재개발, 재건축 질문 등은 지양하도록 별도의 접수창구를 운영하게 된다는 것. 정말 구민의 구정 아이디어에 초점을 맞췄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자체 사업이 어려운 강북구 형편 상 지역을 바꿀 아이디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주민들의 아이디어에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 간담회는 특별한 주제 없이 각종 제안이나 건의사항 등을 망라하게 된다. 이번 간담회 결과에 따라 정례화도 고민해보고 있다. 간담회에 앞서 김 의장은 부족한 예산에서 구 발전 방향을 이끌 수 있는 좋은 방법으로 제안심사위원회 운영을 제안한 바 있다. 제안심사

제도는 구청 직원들과 구민들이 제안한 사업이 구청에서 심의위에서 채택 될 경우 부상금 등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

이번 간담회에서 우수 의견에 대해서도 구청 해당부서의 검토의견을 받아 의회 소관 상임위에서 심의 후 우수 의견(건의)으로 채택한다는 방침이다. 의회 차원에서 (관계 법령 저촉 시 개정 건의, 예산심의 시 지원 등)의견이 실현 가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것.

이번 주민과의 간담회를 앞두고 강북구의회는 대 구민 홍보는 물론 각 주민센터 민원창구에 의견서 접수창구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